

남자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 문제의 하위 발달경로 확인: 성장모형을 적용한 2년간의 종단연구

정 경 미	신 민 정	강 지 현 [†]	김 은 성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동덕여자대학교 아동학과	연세대학교 스포츠레저학과

본 연구는 남자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 문제의 하위 발달 경로를 확인하고, 이를 예측하는 청소년의 기질과 부모 양육행동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경기도 소재 고등학생 602명의 자료를 2년 동안 총 4회 측정하여 분석하였다. 첫 번째 측정에서는 청소년자기행동평가척도(YSR) 중 사회적 위축 척도와, 기질척도(K-JTCl), 그리고 부모양육태도척도(K-PBI)가 측정되었고, YSR의 사회적 위축 척도는 4회 모두 측정되었다. 잠재성장곡선모형을 적용한 결과 남자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 문제의 변화는 선형모형이 적합하였으며 변화율의 평균은 유의미하지 않았다. 그러나 변화율에 있어서 개인차가 유의미하여 잠재성장혼합모형을 적용해 사회적 위축 문제의 하위 발달경로를 구분한 결과, 3가지 경로가 확인되었다. 초기치와 변화율을 고려하여 각각 '높은-유지' '낮은-감소' '낮은-증가' 경로라고 명명하였다. 이러한 경로에 영향을 미치는 청소년의 기질과 부모 양육행동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위험회피 기질과 돌봄 양육방식이 각 경로를 유의미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청소년의 정신건강 영역으로서 사회적 위축 문제를 이해할 때 종단적인 접근을 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개인의 변화에 따라 집단 내 잠재된 이질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한다. 본 연구결과의 시사점과 제한점이 논의되었다.

주요어 : 남자 청소년, 사회적 위축 문제, YSR, K-JTCl, K-PBI, 기질, 부모 양육방식, 잠재성장곡선모형, 잠재성장혼합모형, 발달경로, 로지스틱 회귀분석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강지현 / 동덕여자대학교 아동학과 / (136-714) 서울시 성북구 화랑로 13길 60 동덕여자대학교 인문관 822호 / Tel : 02-940-4497 / E-mail : counsel4u@dongduk.ac.kr

청소년기는 내적으로 심리적 자율성과 자아 정체감의 통합을 추구하고, 외적으로 중등학교로의 진학과 학업적 성취라는 발달 과업을 마주하는 시기이다(Masten & Coatsworth, 1998). 청소년들은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으로 상당한 변화를 경험하고, 내외적으로 많은 갈등을 겪게 되어, 청소년기에는 다양한 형태의 정서 및 행동장애 유병률이 증가하고 급격한 변화 양상이 보고된다(Cicchetti & Rogosch, 2002). 청소년기의 문제행동 및 정신장애 수준은 성인기의 심리사회적 적응을 예측하는 지표이기도 하므로(Pine, Cohen, & Brook, 2001; Weissman, Wolk, Goldstein, Moreau, Adams, Greenwald, et al., 1999), 이 시기의 심리적 적응 수준과 그 발달 양상을 탐색하고 적응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수립하는 것은 심리적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적 비용면에서도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청소년기의 심리적 부적응 양상은 다양한 형태의 문제행동으로 표출되는데, 크게 비행이나 공격성 같은 과소통제(under-control)된 행동이 야기하는 외현화 문제(externalizing problem)와 우울, 불안, 위축 등 지나친 통제(over-control)로 발생하는 내재화 문제(internalizing problem)로 구분할 수 있다(Mash & Barkley, 2003). 이제까지 청소년기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은 상대적으로 표면화되어 나타나고 사회적으로도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 외현화 문제에 집중되어 왔다(좌현숙, 2010; Bolme-Lake, 2007). 그러나, 청소년기에는 내재화된 형태의 정신장애 유병률이 현저하게 상승하며, (Arnett, 1999; Hankin, Abramson, Moffitt, Silva, McGee, & Angell, 1998; Lewinsohn, Rohde, & Seeley, 1998; Petersen, Compas, Brooks-Gunn, Stemmler, Ey, & Grant, 1993), 방치된 내재화 문제행동이 청소년의 인지 영역, 대인관계 영

역, 학업 영역 등 다양한 영역에서 문제를 일으킨다는 연구결과(오경자, 하은혜, 송동호, 2004), 청소년들의 내재화 문제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실제로 가장 대표적인 내재화 문제인 우울과 불안증상에 대한 연구(Goodwin, Fergusson, & Horwood, 2004; Hoekstra, Bartels, Hudziak, Van Beijsterveldt, & Boomsma, 2008)는 그나마 상대적으로 빈번하게 이루어져 왔다.

반면, 또 하나의 대표적 내재화 문제인 ‘사회적 위축 문제’에 대한 연구는 극히 제한되어 있다. 사회적 위축 문제는 사회적 상황에 직면했을 때 홀로 있으려 하는 모든 종류의 행동 및 태도를 의미하며, 수줍어하거나 억눌려 있는 듯하고 에너지 수준이 저하되어 있고, 사회적 관계를 잘 맺지 않으려하는 경향을 말한다(Rubin, Burgess, Kennedy, & Stewart, 2003). Rubin과 동료들(2003)은 자녀의 조절되지 않은 기질과 부모의 둔감한 양육행동의 조합으로 사회적 위축 문제의 발생과 유지를 설명하였다. 이 둘의 조합으로 인해 불안정한 애착이 형성되고 초기 양육자와의 불편한 사회적 관계는 이후 유아기와 아동기를 거치면서 사회적 영역에서의 어려움을 양상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기존 연구들은 사회적 위축 문제가 또래 관계 및 대인관계는 물론 낮은 자아존중감 및 부정적 자기인식과 관련되며, 분리불안, 사회불안, 공포증과 같은 불안장애 및 우울장애 등의 정신병리와 관련있다고 보고한다(Goodwin et al., 2004; Prior, Smart, Sanson, & Overklaid, 2000; Rubin & Burgess, 2001; Rubin, Chen, & Hymel, 1993). 학업에 대한 지나친 강요로 청소년들의 발달과업인 가족, 또래와의 양적·질적인 사회적 상호작용의 기회와 경험이 박탈되는 국내 상황은 사회적 위축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을 높이기 때문에(양재원, 김지혜, 오경자, 2006), 청소년기 사회적 위축 문제가 어떻게 변화하는지와 이를 어떤 변인이 예측하는 지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가 절실하다(Achenbach & Edelbrock, 1991; Rubin & Coplan, 2004).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청소년들의 정서 및 행동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종단적 자료를 통해 시간에 따른 변화 경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Loeber & Farrington, 1994). 종단자료 분석의 가장 대표적인 방법인 잠재성장곡선모형(latent growth curve model; LGCM)과 잠재성장혼합모형(latent growth mixture model; LGMM)으로, 집단 내 잠재되어 있는 이질성 뿐 아니라, 각 잠재계층에 속하는 개인들의 특성을 살펴볼 수 있어 보다 심층적인 분석이 가능하다(강지현, 오경자, 2010; 정익중, 2009).

사회적 위축 문제에 대하여 종단적 접근 방식을 적용해 집단 내 존재하는 하위 집단을 구분한 대표적인 연구는 많지 않다. 먼저, 4.5세부터 7세 아동이 10.5세와 13세가 될 때까지 2년에 한번씩 총 4회 사회적 위축 문제를 측정하여 그 변화를 살펴본 Eggum, Eisenberg, Spinrad, Valiente, Edwards, Kupfer 등(2009)의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보고와 교사의 보고에 따라 각기 다른 잠재계층이 산출되었다. 어머니 보고에 따른 사회적 위축 문제 경로에서는 ‘낮은-감소’ 계층(57.7%), ‘높은-감소’ 계층(6.8%), ‘중간-유지’ 계층(30.3%), ‘중간-증가’ 계층(5.2%)의 4 가지 잠재계층이, 교사의 보고에 의한 사회적 위축 문제 경로에서는 ‘낮은-유지’ 계층(79.7%), ‘높은-감소’ 계층(8.3%), ‘낮은-증가’ 계층(12.0%)의 3가지 잠재계층이 산출되었다. 이들의 연구에서는 정보원에 따라 확인된 잠재계층의 수는 달랐으나, 높은 수준에서

감소하는 계층과 중간이나 낮은 수준에서 증가하는 계층이 교사와 어머니 모두에게서 확인되는 등, 다른 정보원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잠재계층이 확인되었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아동의 분노 행동, 주의조절 능력, 탄력성 등이 잠재계층을 구분하는 유의한 예측변인임을 밝혀내었을 뿐 아니라, 사회적 위축 문제가 높은 수준에서 증가하는 계층의 경우, 회피성 성격장애의 임상적 증상을 충족함을 보여주어 사회적 위축 문제가 회피성 성격장애의 전조 증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Oh, Rubin, Bowker, Booth-LaForce, Rose-Krasnor와 Laursen (2008)의 연구에서는 5-8학년 학생들에게 서로의 학급 활동 역할을 평가하게 하여 사회적 위축 문제의 수준을 측정하였는데, 사회적 위축 문제의 잠재계층이 ‘낮은-유지(84.9%)’, ‘감소(7.7%)’, ‘증가(7.3%)’의 3가지 계층으로 구분됨을 보고하였다. 대다수 학생들이 ‘낮은-유지’ 계층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 위축 문제 수준이 평균적으로는 안정성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 위축 문제가 점차 증가하는 계층과 감소하는 계층을 확인해 사회적 위축 문제행동 내에 서로 다른 변화 양상이 존재함을 보여주었다. 특히, 또래관계의 불안정성과 따돌림의 경험이 사회적 위축문제의 증가하는 경로를 유의미하게 예측한 반면, 친밀한 또래 관계는 사회적 위축 문제의 감소하는 경로의 유력한 예측인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1-6학년을 대상으로 교사가 보고한 사회적 위축 문제의 발달 경로를 탐색한 Booth-LaForce와 Oxford(2008)의 연구에서도 3가지 사회적 위축 문제의 발달 경로를 보고되었다.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정상’ 계층(86%)은 Oh 등(2008)이 산출한 ‘낮은-유지’ 계층과 같이 사회적 위축 문제 수준이

낮은 상태로 유지되는 계층이었고, 낮은 수준으로 시작했다가 점차 증가하는 ‘증가’ 계층이 전체 학생의 9%, 높은 수준에서 시작했다가 점차 감소하는 ‘감소’ 계층이 5%를 차지하였다. 특히 이들은 경험적 자료를 통해 유아의 기질과 부모의 행동이 상호작용하여 자녀의 사회적 위축 문제 발달 수준에 영향을 미친다는 발달-맥락주의적(developmental contextualism) 관점에 입각한 이론적 모델(Rubin et al., 2003)을 입증하였다. 이 연구는 사회적 위축 문제의 발달경로에 대한 예측변인을 개별변인 수준을 넘어 보다 체계적으로 조사하여 이론을 확인하였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사회적 위축 문제뿐만 아니라 그 외 다른 증상을 포함하여 종단연구를 진행한 Sterba, Prinstein과 Cox(2007)의 연구에서는 어머니가 보고한 2-11세 아동의 내재화 문제 발달 경로를 사회적 위축 문제가 포함된 문항들로 측정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남학생과 여학생의 발달 궤적과 잠재계층을 각각 분리하여 탐색하였는데,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3개의 잠재계층이 산출되었다. ‘낮은-유지’ 계층(남: 65%, 여: 69%)과 ‘증가’ 계층(남: 22%, 여: 10%), 그리고 ‘높은-유지’ 계층(남: 13%, 여: 21%)이 산출되었다. 또한 남학생과 여학생 집단에서 산출된 잠재계층의 수와 양상은 비슷하였으나, 각 잠재계층의 초기치와 변화율에서는 유의미한 성차를 보였다.

이상과 같이 종단연구방법론을 사용해 사회적 위축 수준의 발달 궤적과 잠재계층을 살펴본 선행연구들에서 사회적 위축현상이 적어도 3개 이상의 다른 발달 경로를 거쳐 진행됨을 보여주는 것은 하지만 종단적으로 사회적 위축문제에 접근한 연구가 매우 제한되어있다. 뿐만 아니라, 연구 대상이 아동에서 청소년까지 광

범위 하였으며, 사용한 측정도구(예, 부모보고 vs. 자기보고 vs. 교사보고)에 따라 산출된 잠재계층의 수와 비율에 차이가 있었고, 성차도 시사되었다. 특히, 이들 잠재계층을 설명하는 예측변인은 또래관계, 기질, 특성 등 아동개인 변인에서 부모 양육 등 부모변인까지 매우 다양하였다. 따라서 이를 청소년기 사회적 위축 문제의 발달과정을 설명하고 이해하는데 직접적으로 적용하기엔 무리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기 사회적 위축 문제의 발달경로를 추적하여 국내 청소년들의 사회적 위축 문제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고, 이에 영향을 주는 예측변인을 개인의 기질과 부모의 양육행동이라는 발달-맥락주의적(developmental contextualism) 관점에 따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때 개인의 기질은 Cloninger (1987, 2004)가 제안한 기질 및 성격척도(Temperament and Character Inventory:TCI)를 사용했는데, TCI는 최근 국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에서 우울 문제와의 관련성이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즉, 임진현(2005)과 한창환(2003)의 연구에서는 공통적으로 높은 위험회피 기질과 낮은 자율성 성격이 청소년의 우울과 관련된다는 것이 보고되었으며, 김보경과 민병배(2006)의 연구에서도 청소년의 높은 위험회피 기질은 우울에 대한 취약요인으로 확인된 바 있다. 또 김봉석(2004)은 위험회피 수준과 항우울제 반응간 관계를 설명하면서 우울증의 약물치료에 대해서도 언급한 바 있다. 또한 부모양육행동과 관련하여서는 낮은 수준의 돌봄과 높은 수준의 과보호가 임상 및 비임상수준의 우울과 관련되며(Narita, Sato, Hirano, Gota, Sakado, & Uehara, 2000), 지각된 낮은 돌봄 행동이 부분적으로 자율성을 매개로 청소년이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확인된 것(김보경, 민병배, 2006)에 기초하여, 이 두 하위요인의 영향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선행연구에서 직접적으로 사회적 위축 문제와 관련하여 TCI나 부모의 돌봄 및 과보호 차원의 척도를 활용하지는 않았으나, 내재화 문제행동의 하나인 우울과의 관련성이 보고된 만큼 사회적 위축 문제에 대해서도 동일한 척도를 활용하는데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그 대상을 고등학교 학생에 국한함으로써 청소년기의 이해에 초점을 두었고, 기존 연구에서 성차가 시사됨에 따라 그 대상을 남학생으로 제한하였다. 남학생에 집중된 연구는 부분적으로나마 청소년기 사회적 위축 문제에 대한 이해를 도와, 추후 보다 광범위하게 남녀를 포괄하여 성차를 비교하는 연구에 대한 초석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방 법

연구 대상

본 연구는 경기도 소재 인문계 고등학교 1개교에 재학 중인 남학생 602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연구의 측정은 2009년 7월부터 2011년 7월까지 총 4차에 걸쳐 이루어졌다. 1

차 설문은 참가자들이 고등학교 1학년일 때 실시되었으며, 이후 평균 8개월 간격으로 2차는 2학년 때, 3차와 4차는 3학년 때 각각 진행되었다. 수집된 자료에서 척도마다 10%이상의 결측치가 있는 응답을 제외한 인원이 1차 592명, 2차 581명(1차 참여인원의 30명 탈락, 19명 추가), 3차 586명(2차 참여인원의 6명 탈락, 1명 추가), 4차 585명(3차 참여인원의 9명 탈락, 8명 추가)이었다. 전학 등의 이후로 아예 연구에서 탈락한 인원과 질병 등의 사유로 일시 불참여한 인원이 있었으며, 2차 연구 이후에 새로 참여하게 된 학생도 있었는데 이들 중 한번이라도 응답에 참여한 인원은 모두 분석에 포함시켜, 총 602명의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진행하였다. 각 차수별 측정시기와 측정 도구는 표 1과 같다.

측정 도구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 문제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 문제 수준과 그 발달 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Achenbach와 Edelbrock (1991)이 개발하고 오경자, 하은혜, 홍강의, 이혜련(2001)이 표준화한 한국판 청소년 자기행동평가척도(Korean version of Youth Self Report: K-YSR)의 '위축' 소척도를 사용하였다. K-YSR은 총 112문항으로 크게 사회능력 척도와 문

표 1. 각 차수별 측정시기 및 측정도구

	측정 시기	참가자 학년	측정 도구
1차	2009년 7월	고등학교 1학년	YSR(사회적 위축 문제), PBI(부모양육), JTCI(기질)
2차	2010년 11월	고등학교 2학년	YSR(사회적 위축 문제)
3차	2011년 4월	고등학교 3학년	YSR(사회적 위축 문제)
4차	2011년 7월	고등학교 3학년	YSR(사회적 위축 문제)

제행동증후군 척도로 나뉘며, 문제행동증후군 척도는 위축, 신체증상, 우울/불안, 사회적미성숙, 사고의 문제, 주의집중 문제, 비행, 공격성의 8가지 임상척도로 구성된다. 본 연구에서는 내재화 문제의 하위척도 중 하나로 7문항으로 구성된 '위축' 소척도를 사용하여 청소년들의 사회적 위축 문제를 측정하였다. K-YSR은 각 문제행동 항목에 대하여 0점부터 2점까지 3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사회적 위축 문제에 대해서는 0점에서 14점까지의 범위를 갖게 된다. 오경자 등(2001)의 연구에서 '위축' 소척도의 내적합치도 계수는 .71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각 차수별로 .74 - .78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기질

사회적 위축 문제의 발달을 예측하는 요인으로 청소년의 기질 특성을 평가하기 위해 Schmeck, Meyenberg와 Poustka(1995)가 개발하고, 민병배, 오현숙, 이주영(2007)이 표준화한 한국판 기질 및 성격검사-청소년용(Junior Temperament and Character Inventory 12-18: JTCI 12-18)을 사용하였다. 한국판 JTCI 12-18의 각 문항은 4점 척도로 평정되고, 총 82문항으로 성격척도와 기질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기질 척도만을 측정하였다. 기질척도는 자극추구(Novelty Seeking: NS), 위험회피(Harm Avoidance: HA), 사회적 민감성(Reward Dependence: RD), 인내력(Persistence: P)의 네 가지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준화 연구에서 기질척도의 네 가지 차원별 내적합치도 계수는 .65 - .82였다. 본 연구에서는 관련 선행연구(Asendorf, 1991; Booth-LaForce & Oxford, 2008)에서 언급된 수줍고, 사회적인 상황에 대해서 접근과 회피 성향을 보이는 기질

적 특성과 관련된 기질의 영향력을 확인하고, 최근 청소년 관련 내재화 문제행동과의 관련성이 보고될 뿐만 아니라(이주영, 오경자, 2010; 임진현, 2005), 유아기와 아동기의 내재화 문제행동과도 관련성이 보고되는(강지현, 오경자, 2011; 이경숙, 신의진, 전연진, 박진아, 2004), 자극추구 및 위험회피 차원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자극추구 기질은 흥분과 보상을 추구하는 탐색활동과 처벌 및 단조로움을 적극적으로 회피하는 성향에서의 개인차와 관련된 차원이며, 위험회피 기질은 처벌이나 위협이 예상될 때 이를 회피하기 위해 행동이 억제되며 이전에 하던 행동을 중단하는 성향과 관련된 차원이다(민병배 등, 2007).

부모 양육태도

청소년이 지각하고 있는 부모의 양육태도를 평가하기 위해 Parker, Tupling과 Brown(1979)이 개발하고 송지영(1992)이 표준화한 한국판 부모-자녀 결합형태 검사(Parental Bonding Instrument: PBI)를 문경주와 오경자(2002)가 청소년에 적합하게 수정한 버전을 사용하였다. PBI는 각 문항에 대해 4점 척도로 어머니와 아버지의 양육태도를 각각 평정하도록 제작되었고, 정서적 보살핌, 애정, 공감, 친밀성과 냉담함, 무관심, 무시 등을 측정하는 '돌봄(care)'과 과잉보호, 사생활 침입, 간섭, 통제와 독립 등을 측정하는 '과보호(overprotection)'의 두 하위척도가 각각 12문항과 13문항으로 총 2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대해 청소년이 평정한 '어머니 돌봄'과 '어머니 과보호'의 두 하위척도를 사용하였다. 각 하위척도에 대한 본 연구에서의 내적합치도 계수는 각각 .89, .75로 나타났다.

통계 분석

청소년 위축 문제의 시간에 따른 변화를 파악하고 각 변화에서의 개인간 이질성을 확인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잠재성장곡선모형(latent growth curve model)과 잠재성장혼합모형(latent growth mixture modeling)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잠재성장곡선모형분석에서는 각 개인의 반복 측정된 값으로 개별 회귀선을 그린 후, 이로부터 개인들의 초기치의 평균값과 변화율의 평균값을 얻어서 하나의 초기치와 변화율로 이뤄진 함수를 얻게 된다(Muthén & Muthén, 2000). 반복측정 시 발생한 결측치에 대해서는 각 변인들의 결측치가 무선적으로 발생했다는(missing at random: MAR) 가정 하에 FIML(full information maximum likelihood) 방법으로 추정하였다. FIML은 결측치가 있는 자료에 대해서 MAR 가정을 완벽히 충족시키지 않는 조건 아래서도 listwise나 pairwise와 같은 전통적인 방법을 이용하는 것보다 정확하게 미지수 추정을 한다고 알려져 있다(Schafer & Graham, 2002).

잠재성장혼합모형분석은 자료의 이질성이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잠재해 있을 경우에 이러한 이질성을 모형화하여 질적으로 다른 하위 집단, 즉 잠재 계층(latent class)을 도출할 수 있는 종단연구 방법이다. 이를 통해 각 잠재 계층을 구성하는 개인을 확인하고, 문제를 보일 수 있는 발달 경로를 예측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을 통해 사회적 위축 문제를 예측한다고 밝혀진 개인 내적 및 환경적 요인을 고려하여 잠재계층을 산출하였다. 개인 내적 요인으로는 청소년의 기질 중 자극추구와 위험회피 기질을, 환경적 요인으

로는 부모의 양육태도 중 돌봄과 과보호를 선택하여 이들 예측변인을 활용한 조건 모형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또한 하나의 잠재 계층안에서도 개인차 분산을 추정하고 개인차에 대한 설명을 시도하는 이론적 전제(Muthén, 2008)하에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1차 시기를 기준점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자료 분석은 M plus 5.0을 사용하였다. M plus를 활용하여 분류를 할 때에는 공분산 구조모형을 활용하여 통계분석을 실시하는 다른 통계 패키지와 마찬가지로 구조모형을 활용하므로 측정 오차를 줄일 수 있고, 잠재된 특성을 활용하여 유형화할 때 최적의 분류를 검증하기 위한 여러 통계적 모델 적합도 지수를 제시해 보다 신빙성있는 분류를 가능케 한다는 장점을 지닌다(Muthén, 2008).

결 과

주요 변인의 상관 관계

주요 변인들의 상관계수를 표 2에 제시하였다. 사회적 위축 문제는 모은 회차에서 위험회피 기질, 돌봄 및 과보호 양육행동과 유의미한 상관을 나타내, 위험회피 기질이 높을수록, 부모가 과보호적일수록 또한 돌봄이 부족할수록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 문제가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반면, 자극추구 기질과 사회적 위축 문제는 유의미한 상관을 나타내지 않았다.

남자 청소년의 위축 문제 행동 발달경로의 형태

1차, 2차, 3차 및 4차 시기에 측정된 자기보

표 2. 청소년의 기질, 부모 양육행동, 위축 문제행동의 상관 계수

	1	2	3	4	5	6	7	8
1. 자극추구 기질	1							
2. 위험회피 기질	-.25	1						
3. 돌봄 부모행동	-.14*	-.09*	1					
4. 과보호 부모행동	.18**	.21**	-.45**	1				
5. 1차 사회적 위축문제	-.02	.46**	-.16**	.23**	1			
6. 2차 사회적 위축문제	.00	.35**	-.22**	.25**	.57**	1		
7. 3차 사회적 위축문제	-.03	.30**	-.19**	.47**	.47**	.62**	1	
8. 4차 사회적 위축문제	-.03	.34**	-.17**	.51**	.51**	.63**	.63**	1

* $p < .05$, ** $p < .01$

고식 사회적 위축 문제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표 3에 제시하였다.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 문제의 형태를 탐색하기 위하여 선형 모형과 2차 함수 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2차 함수 모형의 경우 음분산(non-positive definite)이 발생하여 자료에 부합하지 않는 모형으로 판단하였다. 2차 함수 모형의 잠재성장곡선분석이 공분산 구조모형의 문제를 드러낸 것에 반해, 선형 모형의 잠재성장곡선모형은 자료에 잘 부합되었다. 분석한 모형이 기저 모형과 비교하여 얼마나 자료를 잘 설명해주는지를 알려주는 상대적 적합도 중 CFI, TLI 값을 고려하고(Bentler, 1990; McDonald & Marsh, 1990),

이론 모형이 자료와 부합되지 않는 정도를 통해서 모델 적합도를 산출하는 지수의 하나인 RMSEA 값을 고려할 때(Browne & Cudeck, 1993), 본 모형의 적합도는 우수한 편으로 남자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 문제의 발달경로는 선형적인 모형이 합당하다고 할 수 있었다(표 4).

사회적 위축 문제의 초기치(intercept)와 변화율(slope)이라는 두 개의 성장요인(growth factor)의 평균과 분산, 이 둘 간의 상관을 표 5에, 사회적 위축 문제의 발달 경로 일부를 그림 1에 제시하였다. 청소년 스스로 지각한 사회적 위축 문제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유의미한 변

표 3. 측정회차별 사회적 위축 문제의 평균과 표준편차

	1차 측정	2차 측정	3차 측정	4차 측정
사회적 위축 문제	2.93(2.39)	3.09(2.66)	3.04(2.54)	2.93(2.63)

표 4.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 문제에 대한 잠재성장곡선모형의 적합도

	χ^2	df	p	CFI	TLI	RMSEA
사회적 위축 문제	11.907	5	.035	.992	.991	.048

표 5. 사회적 위축 문제에 대한 잠재성장곡선모형 검증 결과

	Means	S.E.	t
초기치	2.980	.100	29.774***
변화율	.015	.034	.439
	Variance	S.E.	t
초기치	4.173	.607	6.879***
변화율	.287	.085	3.364**
	Coefficient	S.E.	t
초기치와 변화율 간 상관	-.356	.214	-1.662 (p=.10)

** $p < .01$, *** $p < .001$

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변화율의 분산은 유의미하기 때문에 시간에 따른 변화율에 있어서 개인차이가 유의미하다고 할 수 있었다. 즉 시간의 흐름에 따른 개인들의 사회적 위축 문제 변화율의 평균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지만, 개인 간 변화율의 차이는 유의미하므로 잠재적으로 존재하는 이질성을 추출하기 위해 사회적 위축 문제의 초기치와 변화율을 중심으로 그 유사성에 따라 군집화를 시도해

볼 필요가 시사되었다.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 문제의 하위 발달경로의 확인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 문제의 상이한 개인 발달 경로들 간에 초기치와 변화율이 유사한 발달 경로의 집단이 몇 개가 존재하는지를 확인하고, 이러한 잠재 집단을 예측하는데 청소년의 자극추구 및 위험회피 기질과 지각된 부모 양육행동이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고자 잠재성장혼합모형(latent growth mixture modeling) 분석을 시도하였다.

최적의 잠재집단 수를 결정하기 위하여 모형의 적합도와 간명성의 지표, 동질 등의 지표들을 비교하여 표 6에 제시하였다. LL, AIC, BIC, Adj. BIC는 작을수록 더 나은 모형을 의미하며, entropy는 1에 가까울수록 하나의 잠재집단에 속할 확률이 분명해지기 때문에 좋은 지표가 된다(Muthén & Muthén, 2000; Stoolmiller, Kim, & Capaldi, 2005). Lo-Mendell-Rubin의 조정된 χ^2 검증에서는 k개의 잠재집단 모형을 지지하기 위해 k-1개의 잠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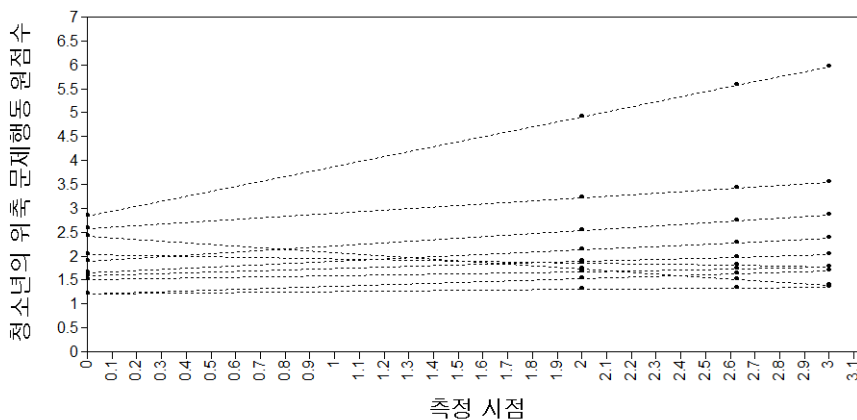


그림 1.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 문제 발달경로의 개별 추정치-일부

표 6. 집단 수에 따른 적합도 지수와 집단원 수

	class=1	class=2	class=3	class=4	class=5
Log Likelyhood	-4965.87	-4911.76	-4887.76	-4857.11	-484.49
AIC	9949.74	9847.52	9805.52	9750.22	9729.57
BIC	9989.34	9900.32	9871.52	9829.43	9821.98
Adj. BIC	9960.76	9862.23	9823.90	9772.28	9755.31
entropy	N/A	.83	.87	.79	.79
Lo-Mendell-Rubin 검증	N/A	-4965.87**	-4911.76**	-4887.76*	-4857.11
n of class	1=602	1=508(84.4%) 2= 94(15.6%)	1=511(84.9%) 2= 51(8.5%) 3= 40(6.6%)	1=152(25.2%) 2= 35(5.8%) 3= 53(8.8%) 4=362(60.2%)	1= 46(7.6%) 2= 86(14.3%) 3= 77(12.8%) 4= 27(4.5%) 5=366(60.8%)

주. N/A= 해당사항 없음. 해당 모형에서 값이 산출되지 않음.

* $p < .05$, ** $p < .01$

집단 모형이 기각되는지를 평가하는데, 이 검증에서 p 값이 유의미하면 k 개의 잠재집단모형을 선택하게 된다(이주영, 오경자, 2010). 이와 같은 모형 적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들과 더불어, 최종적으로 산출된 잠재집단이 이론에 부합하는지를 점검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각각의 지표들을 고려할 때 잠재집단을 3개로 분류하는 것과 4개로 분류하는 모형 모두 타당한 것으로 여겨졌으나, 집단을 4개로 분류

할 경우, 모형이 정상적으로 종료되기는 하였으나 음분산의 위험이 경고되었고, 10%미만의 구성원을 갖는 계층이 2개가 되어 3개로 분류하는 모형에 비해 안정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통계적인 지표와 이론적인 설명 가능성까지 종합하여 최종적으로 가장 합당한 잠재집단의 수를 3개로 정하였다.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 문제의 하위 발달경로에 속하는 구성원들의 초기치와 변화율의

표 7. 사회적 위축 문제 집단(class)별 초기치와 변화율의 평균

	사회적 위축 문제		
	낮은-감소 집단	낮은-증가 집단	높은-유지 집단
초기치의 평균	2.67***	2.38***	7.93***
변화율의 평균	-.15***	1.40***	.05

주. *** $p <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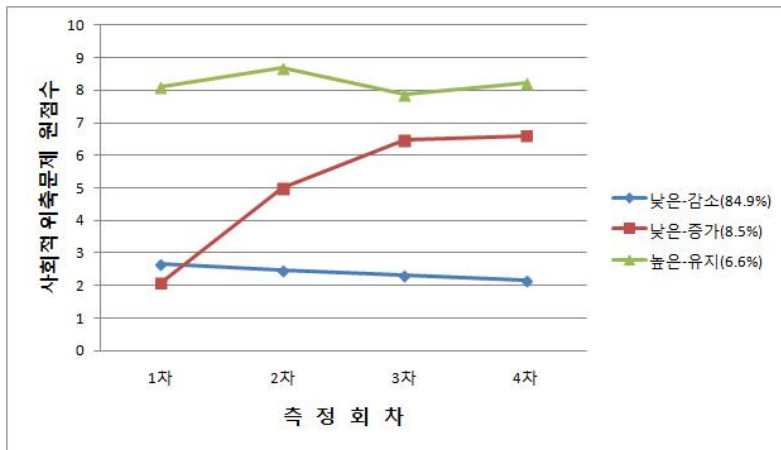


그림 2.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 문제의 세 가지 발달 경로

평균을 표준화된 계수로 표 7에 제시하였다. 집단 1과 집단 2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변화율도 변화하는데 집단 1은 감소하고 집단 2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 3은 변화율의 평균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아 초기 수준이 시간이 지나도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기 수준과 변화율을 고려하여 연구자는 집단 1, 2, 3 각각을 ‘낮은-감소(low-decreasing, 84.9%)’ 계층, ‘낮은-증가(low-increasing, 8.5%)’ 계층, 그리고 ‘높은-유지(high-maintaining, 6.6%)’ 계층이라고 명명하였다. 추정된 하위 발달경로를 그림 2에 제시하였다.

확인된 세 개의 잠재계층의 측정 회차별 사회적 위축 문제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표 8에 제시하였다. ‘높은-유지’ 계층의 경우 대부분

의 측정시기마다 척도의 표준화 연구에서 임상군으로 분류되는 기준점(8점)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낮은-증가’ 계층의 경우 세 번째 측정시기부터 준임상군으로 분류되는 기준점(6점)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기질과 부모 양육행동이 3개의 발달경로를 어떻게 예측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실시된 다항 로지스틱 분석 결과를 표 9에 제시하였다. ‘낮은-감소’ 계층이 기준집단이 되었을 때 ‘낮은-감소’ 계층과 ‘낮은-증가’ 계층을 구별해주는 것은 부모 양육행동 중 돌봄으로, 돌봄 점수가 낮을수록 ‘낮은-감소’ 계층에 비해 ‘낮은-증가’ 계층에 속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낮은-감소’ 계층과 ‘높은-유지’ 계층을 구별해주는 것은 청소년의 위험

표 8. 측정회차별 잠재계층의 사회적 위축 문제의 평균과 표준편차

	1차 측정	2차 측정	3차 측정	4차 측정
낮은-감소	2.65(2.06)	2.47(2.03)	2.33(1.77)	2.16(.08)
낮은-증가	2.10(1.36)	4.98(2.50)	6.48(2.67)	6.61(2.41)
높은-유지	8.12(1.65)	8.68(2.29)	7.87(2.00)	8.24(1.96)

표 9. 청소년의 기질과 부모의 양육행동이 하위발달 경로에 미치는 영향력

	기준집단: 낮은-감소 계층	
	낮은-증가	높은-유지
자극추구 기질	-.02	-.05
위험회피 기질	.05	.26***
과보호	-.03	.05
돌봄	-.06*	-.09**
	기준집단: 낮은-증가 계층	
	낮은-감소	높은-유지
자극추구 기질	.02	-.03
위험회피 기질	-.05	.21***
과보호	.03	.08
돌봄	.06*	-.03
	기준집단: 높은-유지 계층	
	낮은-감소	낮은-증가
자극추구 기질	.05	.03
위험회피 기질	-.26***	-.21***
과보호	-.05	-.08
돌봄	.09**	.03

회피 기질과 부모 양육행동 중 돌봄으로 나타나 위험회피 기질이 높을수록, 부모의 돌봄 점수가 낮을수록 ‘낮은-감소’ 계층에 비해 ‘높은-유지’ 계층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기준집단이 ‘낮은-증가’ 계층일 때 ‘낮은-증가’ 계층과 ‘높은-유지’ 계층을 구별해주는 것은 청소년의 위험회피 기질로 나타나, 위험회피 기질이 높을수록 ‘낮은-증가’ 계층에 비해 ‘높은-유지’ 계층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이를 요약하면 청소년의 위험회피 기질 점수가 높을수록 다른 두 개의 발달경로에 비해 ‘높은-유지’ 계층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고, 부

모의 양육행동 중 돌봄 점수가 낮을수록 ‘낮은-감소’ 계층에 비해 ‘낮은-증가’나 ‘높은-유지’ 계층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 본 분석 결과에 따르면 ‘높은-유지’ 계층에 속할 가능성은 ‘낮은-증가’ 계층보다 높은 위험회피 기질과, ‘낮은-감소’ 계층보다 낮고 ‘낮은-증가’ 계층과 유사한 수준의 돌봄 양육행동으로 설명할 수 있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위축 문제가 청소년기를 거쳐 어떻게 발달하며 변화하는지, 그 변화과정에 어떤 유형이 존재하는지, 그리고 그 유형에 기질이나 양육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고등학교 1학년 남학생을 대상으로 2년간 추적조사 하였다. 연구 결과, 2년의 조사기간 동안 남자 청소년들의 사회적 위축 문제의 변화율의 평균에는 변화가 없었으나, 사회적 위축 문제의 초기치와 변화율에서 개인차가 있어 잠재계층의 가능성이 시사되었다. 이 결과에 따라, 잠재계층 확인을 위한 분석 결과, 3가지 유형, 즉, ‘낮은-감소(low-decreasing, 84.9%)’ 계층, ‘낮은-증가(low-increasing, 8.5%)’ 계층, 그리고 ‘높은-유지(high-maintaining, 6.6%)’ 계층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부모 양육과 기질이 각각의 경로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알아 본 결과, 청소년의 위험회피 기질 점수가 높을수록 다른 두 개의 발달 경로에 비해 ‘높은-유지’ 계층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고, 부모의 양육행동 중 돌봄 점수가 낮을수록 ‘낮은-감소’ 계층에 비해 ‘낮은-증가’나 ‘높은-유지’ 계층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 이상의 결과에 대한 가능한 설명 및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 문제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해나가는지를 살펴본 결과, 선형적인 궤적을 가지며 그 변화율의 평균이 안정적이었다. 그러나 사회적 위축 문제의 초기치나 변화율에 있어서 개인차가 커,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 문제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잠재되어 있는 이질성을 포착할 필요가 있음이 시사되었다. 앞서 언급했듯이 장기종단연구는 국제적인 추세이나, 청소년의 내재화 문제행동을 종단적으로 연구한 사례는 흔하지 않다. 실제로 국내 5개의 데이터베이스(국회도서관, KISS, KMBase, KoreaMed, Riss4U¹⁾)에서 ‘청소년’과 ‘장기종단연구’, ‘잠재성장모형’, ‘잠재성장혼합모형’, ‘잠재성장곡선모형’으로 검색한 결과, 총 28개 연구를 찾을 수 있었고, 그 중 청소년의 내재화 문제를 다룬 연구는 우울과 비행의 시간적 발달 관계를 종단적으로 검증한 연구(이주영, 오경자, 2011), 내재화 문제행동과 외현화 문제행동의 공동 발달과 위험요인의 영향을 밝힌 연구(이은주, 2010), 내재화 문제의 발달 궤적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 및 보호요인을 확인한 연구(좌현숙, 2010)가 있었으며, 청소년기 사회적 위축 문제에 대하여 종단적으로 접근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둘째, 잠재성장혼합모형을 적용하여 얻은 본 연구 결과에 의하면 사회적 위축 문제가 대부분의 청소년에게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음을 시사한다. 즉, 국내 남자 청소년들의 경우 사회적 위축 문제와 관련된 변화 양상이 3

가지 형태를 가지지만, 대다수가 사회적 위축 문제를 보이지 않으며, 후기 청소년기를 거치면서 점점 사회적 위축 문제를 덜 경험하게 됨(‘낮은-감소’, 84.9%)을 보여 준다. 사회적 위축 문제가 3가지 발달경로로 변화해 간다는 본 연구 결과는 아동대상 연구결과와 발달경로의 수에서는 일치하지만(Booth-LaForce & Oxford, 2008; Oh et al., 2008), 그 유형에서는 차이가 있다. 즉, 아동 대상 연구들의 경우, 대다수가 ‘낮은-유지’를 보고하는데 반해, 본 연구에서는 ‘낮은-감소’가 보편적이었다. 이와 관련해서는 2가지 설명이 가능하다. 먼저, 연령에 따른 차이일 가능성이 있다. 청소년기에는 아동기와 달리 또래관계를 형성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인관계를 경험하는 시기이다(Greenberger, Josselson, Knerr, & Knerr, 1975). 따라서 이 기간 동안 습득한 다양한 경험으로 인해서, 사회적 상황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추구하는 방법을 습득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이전의 미숙한 전략들이 점점 더 친사회적인 방법으로 대체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다. 두 번째는, ‘낮은-감소’가 문화적인 차이에서 왔을 가능성이 있다. 사회적 위축 문제에 기여하는 기질과 부모 양육행동의 영향력을 문화적 차이의 견지에서 정리한 Burgess, Rubin, Cheah와 Nelson(2001)의 견해를 적용해본다면, 서구문화에 비해 관계중심적이고 집단주의적인 한국 문화에서 사회적 위축 문제가 성취에 불리하고 보편적이지 않은 행동으로 지각되어, 본 연구에 참여했던 청소년 후반기의 남학생들이 사회적 위축 문제 관련 행동을 다른 행동들로 적극적으로 대처했을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다. 즉, 감소를 보이는 계층은 처음부터 사회적 위축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 아니었기 때문에 비교적 사회적 장

1) 국회도서관(<http://www.nanet.go.kr>), KISS(<http://kiss.kstudy.com>), KMBase(<http://kmbase.medric.or.kr>), KoreaMed(<http://www.koreamed.org>), Riss4U(<http://www.riss4u.net>)

면에 잘 대처할 수 있었고, 점점 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대처한 결과 사회적 위축 문제가 더 감소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가설은 추후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연령과 문화차이에 대해 보다 면밀히 검증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비록 비율 면에서는 15% 내외에 지나지 않으나, 본 연구에서 밝혀낸 나머지 2 집단, ‘낮은-증가’와 ‘높은-유지’ 경로는 좀 더 관심을 두고 지속적으로 연구해야 할 대상이다. 고등학교 초반부터 일관적으로 사회적 위축 문제를 보고하는 ‘높은-유지’ 집단은 기존의 아동 연구에서는 드물게 보고되었던 패턴이다. 아동 연구들에서는 가장 보편적인 ‘낮은-유지’를 제외하고는 ‘높은-감소’나 ‘낮은-증가’ 등 발달 경로에 따라 기울기의 변화를 보이는 집단이 보편적이기 때문이다.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본 연구결과에서 도출된 고위험 집단의 사회적 위축 문제 수준이 ‘높다’는 것인데, 4차례에 걸친 사회적 위축 문제 측정에서 이들이 보고한 점수의 평균은 임상군의 절단점(70T, 98%ile)에 해당된다(오경자 외, 2001). 전문가의 진단이나 임상면접이 없었으나 이들이 호소하는 수준은 진단이 내려질 만큼 심각한 수준인 것이다. 보다 우려스러운 점은 이 집단의 점수가 쉽게 변하지 않고 ‘안정적’이라는 것인데, 이는 고등학교 초반에 이미 높은 사회적 위축 문제를 보인다면, 이를 다루는 특별한 조치 없이는 이 증상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저절로 없어지지 않을 것임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따라서 아동기 후기나 늦어도 청소년기에는 사회적 위축 문제를 조사하고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집단에 대해서는 시급히 개입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한편, 학년의 증가와 함께 사회적 위축 문제가 점차적으로 높

아지는 ‘낮은-증가’ 집단의 경우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들은 3회 측정부터 준임상 수준(65T, 93%ile)에 해당되는 점수를 보이고 있다(오경자 외, 2001). 이 집단의 경우 발달 경로의 형태를 고려할 때 이들의 사회적 위축 문제 증가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파악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위험회피 기질이 높고 부모 양육태도 중 돌봄 수준이 낮을수록, 다른 집단보다 ‘낮은-증가’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음을 보고 하였으나, 이 정보만으로 ‘낮은-증가’ 집단을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 결과는 대입이라는 큰 발달적 과업을 두고 과도한 학업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국내 현실을 반영하는 패턴일 수 있고, 혹은 상대적으로 사회적 관계에 비중을 덜 두는 남학생들에게서만 나타나는 현상일 수 있다. 이 문제에 대해 보다 정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추후로 심층적 연구를 통한 탐색이 요구된다.

넷째, 청소년의 위축 문제행동의 하위 발달 경로를 예측하는데 위험회피 기질과 돌봄 양육행동이 유의미한 설명력을 지녔음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위험회피 기질과 내재화 문제행동간 관련성은 일관되게 거론되어 왔었다(예: 임진현, 2005; Kim, Lee, Yune, Sung, Bae, Chung, et al., 2006). 본 연구 결과에서도 내재화 문제행동에 속하는 사회적 위축 문제에 대한 높은 위험회피 기질의 취약성이 일관되게 드러나고 있다. 또한 사회적 위축 문제가 ‘높은-유지’ 계층은 높은 위험회피 기질 면에서 다른 두 계층과 구분되었고, ‘낮은-감소’와 ‘낮은-증가’ 계층을 구분했던 변인은 기질이 아닌 지각된 부모의 ‘돌봄’ 시었던 것을 감안한다면 사회적 위축문제가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는 청소년의 경우 기질이 보다 핵심적인 요인일

가능성이 시사된다. 그리고 사회적 위축 문제에 대해서 낮은 돌봄 양육행동이 예측 변인으로 드러났는데, '돌봄' 차원은 체벌이나 꾸중이 없는 양육이 아니라 칭찬을 하고 관심을 기울이는 등의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이는 양육을 말한다. 사회적 위축 문제가 청소년의 기질로 대표되는 타고난 특성 뿐 아니라 환경적인 영향을 대표하는 부모 변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 자체는 그리 놀랍지 않다. 그러나 이 점이 청소년기 사회적 위축 문제 집단을 위한 대책마련에 대한 방향성은 제시해 준다. 즉, 사회적 위축 문제가 높은 남자 청소년에게 교육 혹은 치료적 개입이 시도될 경우 위험회피 기질에 대한 고려와 함께 돌봄 차원의 양육 환경이 함께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사회적 위축 문제가 포착되는 청소년들에게는 이 문제가 지속될 가능성이 크므로 발견 시 지속적이고 세심한 관찰과 관심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양육행동 중 과보호 요인은 사회적 위축 문제의 세 계층을 효과적으로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대입을 중심으로 과도한 경쟁에 시달리는 국내 고교생들에게 부모의 과보호는 이들을 위축시키고 주눅들게 하는 요인일 가능성이 해석될 수 있다. 혹은 과보호 요인이 자율성 존중과 과잉보호 요인으로 구분되었던 문경주와 오경자(2002)의 연구결과를 고려할 때 서로 상이한 요인을 포함하고 있어서 과보호의 예측력이 과소평가 되었을 가능성 역시 무시하기 어렵다. 향후 연구에서는 보다 세련된 척도나 방식을 통해 부모양육행동의 영향력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 결과는 비록 청소년기가 또래나 교사의 영향에 민감한 시기이기는 하지만 부모의 영향력이 여전히 크게 작용하고 있으며(임은미, 정성석,

2009), 이로 인해 부모의 지속적인 돌봄이 필요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현장에서는 부모개입의 현실적 한계성 때문에, 청소년 개인을 중심으로 교사나 전문상담교사, 또래 상담자 등의 개입, 나아가 필요하다면 전문가 집단과의 연계가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청소년의 정신건강의 중요한 측면인 사회적 위축 문제에 대해 종단적 접근을 시도하여 소정의 결과를 얻었으나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갖고 있다. 먼저, 본 연구는 고등학교 남학생을 대상으로 2년간의 자료를 통해 분석되었는데, 발달 과정동안 일어나는 변화를 보기 위해서는 유아기에서 청소년기까지 함께 살펴볼 수 있는 대규모의 장기종단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 어느 연령까지 특정 발달양상이 지속되다가 어떤 이유로 상이한 변화 패턴을 보이게 되는가에 대한 정보는 사회적 위축 문제에 대한 이해를 높일 것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전국을 대표할 수 있는 표집과 이들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반복측정 자료가 요구된다. 두 번째로, 사회적 위축 문제 집단을 구분 짓는 보다 다양한 변인에 대한 탐색이 요구된다. 특히 본 연구는 가장 대표적으로 간주되는 요인을 조사하였으나, 앞서 언급했듯이 청소년기가 처한 사회적 상황의 고려와 다른 발달적 측면과 관련된 변인의 탐색은 이해의 폭을 증진시킬 것이다. 본 연구에서 자극추구 기질이 유의미한 예측력을 갖지 못했던 것을 고려하여 보다 다양한 기질 특성이 포함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선행 연구에서 언급되는 또래의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또래관계 측정이 요구된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집단 따돌림이나 폭력의 피해 경험 등이 포함된다면 사

회적 위축 문제에 대한 보다 정교한 시각을 제공할 것이다. 셋째, 자기보고식 설문지에만 의존하여 자료가 수집된 점이 보강되어 또래 평정이나 교사 평정, 임상 전문가의 진단 면접 등이 추가된다면 청소년기 사회적 위축 문제의 변화를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1차 시기에 사회적 위축 문제와 더불어 측정된 기질과 부모양육행동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위험회피 기질은 다른 시기에 비해 1차 사회적 위축문제와 가장 상관이 높았다. 이것은 사회적 위축 문제가 높은 학생들이 위험회피 문항에 특징적으로 높게 반응했을 가능성도 시사되는 바 추후 연구에서는 이같은 점도 보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부모양육행동 척도를 분석에 적용하기 전, 국내 남자 고등학생의 요인구조를 밝히는 작업이 선행되지 못한 채 원저자의 2요인 구조를 그대로 적용하였는데 향후 연구에서는 관련 분석이 보완될 필요가 있으며, '심리적 통제'와 같은 청소년의 발달적 특성과 연관되는 다양한 양육변인이 포함될 필요가 시사된다. 넷째, 연구 대상자가 남학생에 국한되었던 것도 제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사회적 위축 문제를 포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학생도 포함되었어야 하며, 향후 이를 바탕으로 청소년기 사회적 위축 문제의 발달에 있어서의 성차가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본 연구에서는 측정 시기가 균등하지 못했는데 특히 후반부로 갈수록 측정 간격이 짧아 이로 인해 후반부의 변화가 과대추정되었을 가능성이 시사되는 바, 본 연구의 잠재계층 개수와 유형의 안정성은 다른 유사연구를 통해 검증될 필요가 있겠다.

본 연구 결과, 많은 수의 청소년들이 낮은 수준의 사회적 위축 문제를 보고하지만, 일부

사회적 위축 문제가 적응에 방해를 가져오는 하위 집단이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들 고위험 집단에 대한 예측변인으로 확인된 기질이나 부모 양육방식을 통한 개입, 학교와 전문가 집단과의 체계적인 연계 시스템의 구축, 정부의 청소년 정신건강에 대한 지원 등 사회 전반적인 지원체계가 구비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체계의 구축으로 이들 청소년들에 대한 구체적인 도움제공 뿐 아니라, 장애로의 발전을 예방할 수 있는 대안의 실현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입시위주의 과도한 경쟁, 그 과정에서 또래나 성인과 소통하거나 나름의 여가를 즐기는 것이 실현 불가능한 소망으로 여겨지는 흐름에 반하는 대안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강지현, 오경자 (2010). 유아기 외현화 문제행동의 하위 발달경로에 미치는 기질의 효과: 잠재성장혼합모형(Latent Growth Mixture Modeling) 분석을 적용한 단기종단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9(3), 875 -894.
- 강지현, 오경자. (2011). 유아기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에 대한 연령, 기질과 양육행동의 영향에 있어서의 성차.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6(1), 1-21.
- 김보경, 민병배 (2006). 청소년 우울과 지각된 부모 양육 행동, 기질 및 성격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5(1), 221-236.
- 김봉석 (2004). 주요우울증환자에서 항우울증 약물치료전후 위험회피성의 변화. 인제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문경주, 오경자 (2002). 지각된 부모의 양육행

- 동과 초기 청소년의 우울 및 불안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1, 29-43.
- 민병배, 오현숙, 이주영 (2007). 기질 및 성격검사 매뉴얼. 서울: (주)마음사랑.
- 송지영 (1992). 한국판 부모-자녀 결합형태검사 (PBI): 신뢰도 및 타당도 검증. 신경정신의학, 31(5), 979-990.
- 양재원, 김지혜, 오경자 (2006). 사회불안집단의 부정적 얼굴 표정에 대한 선택적 주의 편파: 세 연령 집단 비교.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5, 237-255.
- 오경자, 하은혜, 송동호 (2004). 청소년기 정서 장애 조기발견 및 정신건강 서비스 연결체계 모형개발. 건강증진기금 연구사업 보고서.
- 오경자, 하은혜, 홍강의, 이혜련 (2001). K-YSR 청소년 자기행동 평가척도.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 이경숙, 신의진, 전영진, 박진아 (2004). 한국 유아 행동문제의 경향과 특성: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7(4), 53-73.
- 이은주 (2010). 내재화 행동문제와 외현화 행동문제의 종단적 공동발달: 잠재성장모델의 적용. 한국청소년연구, 21(4), 171-200.
- 이주영, 오경자 (2010). 청소년기 우울-비행 공존 집단에 영향을 미치는 기질 및 성별이 효과: 잠재 프로파일 분석(latent profile analysis)의 적용.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9(1), 53-72.
- 이주영, 오경자 (2011). 자기회귀 교차지연 모형을 적용한 청소년기 우울과 비행의 시간적 발달 관계 검증: 성별간 다집단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30(2), 497-518.
- 임은미, 정성석 (2009).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우울의 변화 및 우울에 대한 스트레스의 장기적 영향. 청소년학연구, 16(3), 99-121.
- 임진현 (2005). 우울-品行장애성향 청소년의 기질과 자기개념 및 정서 특성.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석사학위 청구논문.
- 정익중 (2009). 청소년비행 발달궤적의 다양한 유형. 한국청소년연구, 20(3), 253-280.
- 좌현숙 (2010). 청소년 내재화 문제의 발달궤적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과 보호요인: 발달-맥락주의 관점을 적용하여. 청소년학연구, 17(10), 105-133.
- 한창환 (2003). 생물유전적 기질과 가정환경이 청소년기 우울,品行장애성향 및 반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성격, 자아상 및 스트레스를 매개변인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Achenbach, T. M., & Edelbrock, C. (1991). *Manual for the Child Behavior Checklist/4-18 and 1991 profile*. Burlington: University of Vermont.
- Arnett, J. J. (1999). Adolescent storm and stress, reconsidered. *American Psychologist*, 54(5), 317-326.
- Asendorpf, J. B. (1991). Development of inhibited children's coping with unfamiliarity. *Child Development*, 62, 1460-1474.
- Bentler, P. M. (1990). Comparative fit indexes in structural models. *Psychological Bulletin*, 107(2), 238-246.
- Bolme-Lake, T. L. (2007). *Predicting internalizing problems in at-risk children and adolescents*. Doctoral dissertation. Capella University.
- Booth-LaForce, C., & Oxford, M. L. (2008). Trajectories of social withdrawal from grades 1 to 6: Prediction from early parenting,

- attachment, and temperament. *Developmental Psychology*, 44(5), 1298-1313.
- Browne, M. W., & Cudeck, R. (1993). Alternative ways of assessing model fit. In K. A. Bollen & J. S. Long (Eds.), *Tes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pp.136-162). Newbury Park, CA: Sage.
- Burgess, K., Rubin, K. H., Cheah, C., & Nelson, L. (2001). Socially withdrawn children: Parenting and parent-child relationships. In R. Crozier & L. E. Alden (Eds.), *The self, shyness and social anxiety: A handbook of concepts, research, and interventions*. New York: Wiley.
- Cicchetti, D., & Rogosch, F. A. (2002). A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perspective on adolescence.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70(1), 6-20.
- Cloninger, C. R. (1984). A systemic method of clinical description and classification of personality variants.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44, 573-588.
- Cloninger, C. R. (2004). *Feeling Good: The Science of Well-being*. New York: Oxford.
- Eggum, N. D., Eisenberg, N., Spinrad, T. L., Valiente, C., Edwards, A., Kupfer, A. S., et al. (2009). Predictors of withdrawal: Possible precursors of avoidant personality disorder.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21, 815-838.
- Goodwin, R. D., Fergusson, D. M., & Horwood, L. J. (2004). Early anxious/withdrawn behaviours predict later internalising disorders.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45(4), 874-883.
- Greenberger, E., Josselson, R., Knerr, C., & Knerr, B. (1975). The measurement and structure of psychosocial maturity.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4(2), 127-143.
- Hankin, B. L., Abramson, L. Y., Moffitt, T. E., Silva, P. A., McGee, R., & Angell, K. E. (1998). Development of depression from preadolescence to young adulthood: Emerging gender differences in a 10-year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7(1), 128-140.
- Hoekstra, R. A., Bartels, M., Hudziak, J. J., Van Beijsterveldt, C. E. M., & Boomsma, D. I. (2008). Genetic and environmental influences on the stability of withdrawn behavior in children: A longitudinal, multi-informant twin study. *Behavior Genetics*, 38(5), 447-461.
- Kim, S. J., Lee, S. J., Yune, S. K., Sung, Y. H., Bae, S. C., Chung, A., et al. (2006).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biogenetic temperament and character and psychopathology in adolescents. *Psychopathology*, 39, 80-86.
- Lewinsohn, P. M., Rohde, P., & Seeley, J. R. (1998). Major depressive disorder in older adolescents: Prevalence, risk factors, and clinical implications. *Clinical Psychology Review*, 18(7), 765-794.
- Loeber, R., & Farrington, D. P. (1994). Problems and solutions in longitudinal and experimental treatment studies of child psychopathology and delinquenc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2(5), 887-900.
- Mash, E. J. & Barkley, R. A. (Eds.). (2003). *Childhood psychopathology* (2nd ed.). New York: Guilford.
- Masten, A. S., & Coatsworth, J. D. (1998). The

- development of competence in favorable and unfavorable environments: Lessons from research on successful children. *American Psychologist*, 53(2), 205-220.
- McDonald, R. P., & Marsh, H. W. (1990). Choosing a multivariate model: Noncentrality and goodness of fit. *Psychological Bulletin*, 107(2), 247-255.
- Muthén, L. K., & Muthén, B. O. (2000). Integrating person-centered and variable-centered analyses: growth mixture modeling with latent trajectory classes. *Alcoholism: Clinical and Experimental Research*, 24(6), 882-891.
- Muthén, B. (2008). Latent variable hybrids: Overview of old and new models. In G. R. Hancock & K. M. Samuelson (Eds.), *Advances in latent variable mixture models*. Charlotte, NC: IAP.
- Narita, T., Sato, T., Hirano, S., Gota, M., Sakado, K., & Uehara, T. (2000). Parental child-rearing behavior as measured by the PBI in Japanese population: factor structure and relationship to a lifetime history of depression.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57, 229-234.
- Oh, W., Rubin, K. H., Bowker, J. C., Booth-LaForce, C., Rose-Krasnor, L., & Laursen, B. (2008). Trajectories of social withdrawal from middle childhood to early adolescence.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6(4), 553-566.
- Parker, G., Tupling, H., & Brown, L. B. (1979). A parental bonding instrument. *British Journal of Medicine Psychology*, 52, 1-10.
- Petersen, A. C., Compas, B. E., Brooks-Gunn, J., Stemmler, M., Ey, S., & Grant, K. E. (1993). Depression in adolescence. *American Psychologist*, 48(2), 155-168.
- Pine, D. S., Cohen, P., & Brook, J. (2001). Adolescent fears as predictors of depression. *Biological Psychiatry*, 50(9), 721-724.
- Prior, M., Smart, D., Sanson, A., & Oberklaid, F. (2000). Does shy-inhibited temperament in childhood lead to anxiety problems in adolescence?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39(4), 461-468.
- Rubin, K. H., & Burgess, K. B. (2001). Social withdrawal and anxiety. In M. W. Vasey & M. R. Dadds (Eds.), *The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of anxiety* (pp.407-434).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Rubin, K. H., Burgess, K. B., Kennedy, A. E., & Stewart, S. (2003). Social withdrawal in childhood. In E. Mash & R. Barkley (Eds.), *Child psychopathology* (2nd ed., pp.372-406). New York: Guilford Press.
- Rubin, K. H., Chen, X., & Hymel, S. (1993). Socioemotional characteristics of withdrawn and aggressive children. *Merrill-Palmer Quarterly*, 39(4), 518-534.
- Rubin, K. H., & Coplan, R. J. (2004). Paying attention to and not neglecting social withdrawal and social isolation. *Merrill-Palmer Quarterly*, 50, 506-534.
- Schafer, J. L., & Graham, J. W. (2002). Missing data: Our view of the state of the art. *Psychological Methods*, 7(2), 147-177.
- Schmeck, K., Meyenburg, B., & Poustka, F. (1995). *Persoenlichkeitsfragebogen fuer Jugendliche- JTCL*. Universitaet Frankfurt.

- Sterba, S. K., Prinstein, M. J., & Cox, M. J. (2007). Trajectories of internalizing problems across childhood: Heterogeneity, external validity, and gender differences.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19*, 345-366.
- Stoolmiller, M., Kim, H. K., & Capaldi, D. M. (2005). The course of depressive symptoms in men from early adolescence to young adulthood: Identifying latent trajectories and early predictor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14*(3), 331-345.
- Weissman, M. M., Wolk, S., Goldstein, R. B., Moreau, D., Adams, P., Greenwald, S., et al. (1999). Depressed Adolescents Grown Up. *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281*(18), 1707-1713.
- 원고접수일 : 2012. 10. 19.
1차 수정 원고접수일 : 2012. 12. 04.
2차 수정 원고접수일 : 2013. 1. 24.
게재결정일 : 2013. 1. 28.

Identification of developmental trajectories of social withdrawal in male adolescents: A two-year longitudinal study using growth modeling

Kyong-Mee Chung¹⁾ Minjung Shin¹⁾ Ji Hyeon Kang²⁾ Eun Sung Kim³⁾

¹⁾Dept. of Psychology Yonsei University

²⁾Dept. of Child Development & Education Dongduk Womens University

³⁾Dept. Sports & Leisure Yonsei University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1) to identify developmental trajectories of social withdrawal in male adolescents and (2) to investigate the impact of temperament and parental behaviors on latent classes. A total of 602 students were recruited from a boys' high school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and were assessed four times approximately every eight months over a two-year period. The Parental Bonding Instrument and Junior Temperament and Character Inventory 12-18 were administered at the first time point and the Korean version of the Youth Self Report (K-YSR) withdrawal subscale was administered across all four time points. Results of Latent Growth Curve Modeling (LGCM) revealed that the linear model showed a better fit than quadratic model and the slope of the means was not significant. Latent Growth Mixture Modeling (LGMM) identified three latent trajectories; "High Stable", "Low Decreasing", and "Low Increasing."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for examination of the impact of temperament and parental behaviors on developmental trajectories. These analyses revealed that "harm avoidance temperaments" and level of "care" in parents were predicted of high risk trajectories. This study demonstrated the need for utilization of longitudinal approaches to understanding individual differences of social withdrawal behaviors in adolescents.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were discussed along with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Key words : male adolescents, social withdrawal, K-YSR, K-PBI, K-JTCL, temperament, parenting behaviors, latent growth curve modeling, latent growth mixture modeling, developmental trajectories, logistic regression